

“이런 날 올 줄이야” 지구촌 열광

“오바마, 백인 신세대 이념지도 바뀌”

기독교 보수층 우편향→좌편향 이동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미 최초의 흑인 대통령 탄생을 계기로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보수적인 미 백인 기독교 청년세대의 이념 지도가 바뀌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아 주목된다.

19일 뉴스위크에 따르면 1981년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서 태어난 더그 폴은 백인 기독교 보수층 집안에서 성장하며 서서히 가라앉는 가족과 생활 이념을 배워 온 미국 내 전형적인 청년 보수 세대로 불려 왔다.

폴은 보수적인 색채의 공화당 ‘골수’ 당원인 부모를 따라 매일같이 교회를 다녔고 식사때는 항상 성경의 구절을 외워 온 청년 보수층의 ‘모범생’이었지만 오바마의 등장으로 자신이 최선으로 믿어 온 이념의 방향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

고교에 들어갈 때까지 팽을 듣는 일조차 드물었던 폴은 지난 대선에서 이슈로 떠올랐던 유산 및 동성애 문제를 놓고 이념적 갈등을 겪게 됐고 오바마에게 지지표를 던지며 부모의 ‘가르침’을 배신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폴은 기독교 보수층이 반대하

는 유산이란 문제가 개인적 선택의 문제가 아닌지, 동성애가 두 사람 간의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는지를 놓고 지금껏 자신이 가져온 관념에 배치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뉴스위크는 폴과 같은 미국 내 보수적인 백인 청년 복음주의자 세대에 속하는 ‘여호수아 세대’들이 기존의 이념 성향을 접은 채 오바마에게 대거 지지표를 던진 것이 젊은 백인 보수층의 이념적 대변역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지난 대선에서 18~29세 사이의 백인 기독교 세대 중 3분의 1가량이 오바마를 지지했고 이는 2004년 민주당 존 케리 대선 후보에게 16%만이 지지표를 던졌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오바마에 대한 지지표 비중 3분의 1이 대다수라고 볼 수 없지만 이들의 조부모 세대는 4분의 1 정도가 오바마를 지지했다.

대선 결과에 근거하면 젊은 세대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미국 내 기독교 보수층이 우편향에서 좌편향으로 약간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연합뉴스



미 역사상 첫 흑인 대통령의 역사적 취임식이 열리기 하루 전날 19일(현지시간) 취임식장인 미 국회의사당은 취임식 준비로 분주했다. /연합뉴스

■ 취임식 이모저모

‘버락 오바마 시대’가 열렸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일 오전 11시30분 취임선서와 함께 미 헌정사상 첫 흑인 대통령이 됐다. 임기는 미국 헌법에 따라 이날 정오(한국시각 21일 새벽 2시)부터 시작됐다.

‘변화’와 ‘담대한 희망’을 역설한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식은 이날 오전 9시 워싱턴 성요한교회에서 비공개 예배를 올린 후 국회의사당에 마련된 취임식장으로 이동, 오전 10시부터 열렸다.

역사적인 흑인 대통령의 취임 순간을 보려고 미 의회 의사당 앞 광장과 내셔널볼 주변에 운집한 수백만명의 세계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은 윈슨을 링컨 대통령이 취임 당시 사용했던 성경에 엮고 오른손을 들어 존 로버츠 연방대법관 앞에서 취임선서를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1930년대 경제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위기 극복에 대한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는 ‘담대한 희망’을 역설했다.

취임 연설 후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서 상하원 의원 등과 축하 오찬을 함께 한 뒤 오후 2시 백악관 임성의 통과의례인 거리행진 행사를 벌였다. 기념 행진은 의사당에서 백악관이 위치한 펜실베이니아가 1600번지 사이의 약 2.7km 구간에서 삼엄한 경비 속에서 성대하게 펼쳐졌다.

취임식 비용 총 1억7천만달러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는 데 총 1억7천만달러가 들 것으로 전망됐다.

20일 ABC에 따르면 미 연방정부는 취임식이 있는 이번 주에만 4천900만달러를 쓸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워싱턴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 주정부는 경비·화재예방·긴급의료체계 구축 분담 경비로 연방정부에 7천500만 달러를 요청했다.

여기에도 취임식준비위원회가 모은 기부금만 해도 4천500만 달러가 넘는다. 이는 부시 대

통령의 2005년 취임 모금액 4천230만 달러나 빌 클린턴의 1993년 모금액 3천300만 달러보다도 많은 것이다.

한편, 금융 위기로 구제금융을 받은 금융계 인사들을 비롯해 미국의 내로라하는 부자들이 이번 취임식에 1인당 최대 5만 달러씩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억만장자 조지 소로스와의 가족은 모두 25만 달러를 기부했다.

오바마 관련 서적 출간 봇물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에 즈음해 오바마 관련 서적이 꾸준히 출간되고 있다.

미국의 마케팅전문가인 배리 리버트와 릭 포크가 쓴 ‘오바마 주식회사(지식의날개 펴냄)’는 오바마의 48년 인생 중 2년여의 대통령 선거 기간에 초점을 맞춰 그의 성공 비결을 분석하고 이를 기업경영에 적용하는 경영전략서다.

또 ‘나는 세상의 희망이 되고 싶다 : 버락 오바마(상상북스 펴냄)’와 ‘만화 오바마 이야기 : 세상에서 가장 큰 꿈을 꾸 아이’(다산어린이 펴냄), ‘오바마처럼 발표할 뉘’(뿌브아르 펴냄) 등 오바마를 소재로 한 어린이책들도 잇따라 출간됐다.

저격대응팀 등 2만여명 입체경호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식 경호를 총괄할 비밀검찰국은 저격수 대응팀까지 동원해 첩첩 같은 입체경호를 펼쳤다.

통상적으로 대응팀은 고상능 소총을 휴대한 2인 1조로 구성되며 1명은 언제든지 대응사격을 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팀원 중 1명이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곧바로 사격준비 자세를 취하고 나머지 1명은 보조 역할을 담당한다. 이 과정에서 굴뚝 연기와 깃발 또는 공기 흐름 등을 통해 상황을 판단한다.

한편, 취임식에는 저격수 대응팀은 물론 8천명의 경찰, 1천명의 연방수사국(FBI) 요원, 교통안전국(TSA) 검색요원, 1만명의 주 방위군 병력 등이 경호에 동원됐다.

/박정욱기자 jwpark@연합뉴스

클린턴 “오바마, 분열정치 끝낼 것”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향후 30년간의 미국 정치는 지난 40년의 정치를 특징지었던 당쟁이 아니라 현안에 대해 실용적이고 포괄적으로 다가가는 방식이 주류를 이룰 것이라고 전망했다.

클린턴은 19일(현지시간) 시장들의 모임에 참석해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의 승리로 정치인들이 총기 규제 등 분열을 야기하는 쟁점들을 이용해 이념적 강경파들을 자극했던 1960년대 이후 시대가 막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앞으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효율적인 정부 등 기본적인 문제들에 관심



을 갖는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다가서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턴은 “내 생각으로는 분열과 파괴의 정치를 그대로 가져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인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인종적·종교적 다양성에 적응했으며 민주당은 2006년부터 이 같은 변화의 혜택을 입었지만 그렇다고 미국이 좌파로 흘러가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타민비교거부 = **줄이론반** = 토시학원의 정답만사

검정장교공무원필고시학원 방문합영

*** 79a 공무원 합격의 대세는 ***

“역시” 한빛고시학원

[북구청앞 TEL 234-0234 www.hanbitgoal.co.kr]

포기마감, 신학순정수 = **일문제풀이반** = 1월 21일

보양음료 숙취해소

관류기능보충제(스트레스) 감소

아직도, 힘들게 보약을 달아 드십니까?

국산성약은 살아보소 모두의 보양음료입니다.

주요문의전화 062-267-7753

상암포구점 011-9412-8700

이런 조건이 선행

무보증 신용대출 1,000만원까지 가능

당도대출 안내

신사업자 대출 안내

대출금	연이자율	상환기간	당도대출	신사업자대출
1,000만원	10.9%	36개월	20,000원	10,000원
2,000만원	11.0%	36개월	20,000원	10,000원
3,000만원	11.1%	36개월	20,000원	10,000원

문의전화: 011-9412-8700 (상암포구점) / 011-9412-8700 (북구청앞점) / 011-9412-8700 (서문점)